

영생하는 사람들만 사는 시온성

시온성이 곧 이곳(소사)에 세워진다

시온은 하늘나라 이전에 세워지는 곳

여러분들 시온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시온은 하늘나라로 이루어지는 과정의 나라예요. 시온의 영광이 비추는 아침이라는 찬송가가 있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라고 했으니까 구세주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전멸되고 사람이 하나님인 된 세상이에요. 구세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라고 했던 거예요. “아침이 밝아오네”라는 것은 인간들이 전부 하나님이 되니까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지혜의 영광의 빛이에요.

시온이라는 곳은 인간 속에 있는 마귀를 구세주가 소멸해 버리는고로 인간들이 전부 하나님이 되는 세상이예요. 그러니까 마귀 세상이 하나님의 세계가 되는 거죠? 직선광선 속에서는 그들이 있고 밤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곡선광선인고로 그들이 없고 또 어둠이 없어요. 시온의 영광의 빛은 태양빛의 몇 십 배 되는 그러한 빛이에요. 그 세계는 밤낮이 없는 항상 빛의 세계인고로 마귀가 그 세상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마귀가 존재할 수 없고 마귀가 거할 수가 없는 세상인 것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그 나라는 구세주가 인도하는 나라예요. 구세주가 영원무궁토록 우주를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도적과 같이 임하는 구세주

인간들은 구세주라는 존재가 사람

몸을 입었기 때문에 인간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구세주의 본체는 격압 유류에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니라고 쓰여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육천 년간 마귀를 소멸해 버리는 무기를 개발하고 육천 년 만에 이 세상 사람으로 온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성경에 주님이 도적같이 임한다(데살로니가 전서 5:2)고 그랬습니다. 마귀가 구세주 올 것을 미리 알면 오지 못하게 방해할 것을 아시고로 도적과 같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내려와야만 마귀가 알지 못하게 되어 있는고로 도적같이 임한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시온의 영광의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 갈 수 없는 사람을 구세주가 심판해서 들어갈 자는 들여보내고 못 들어 갈 자는 던져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 날이 임박하는데 제단 나오는 것을 소홀히 생각을 하고 인간의 새 대가리를 굴려서 제멋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12장에 매일 드리는 번제를 폐하면 멸망을 받는다고 한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매일 드리는 번제를 폐하면 그건 구원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번제를 매일 드려야. 영광을 하나님에게 돌려야 그 사람이 구원 권에 드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구원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야 구원이 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다르면 틀이예요. 마귀는 분열의 영인고로 하나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삼인 삼자가 많아요. 60억 인간이 있다 하여도 60억 인간이 하



구세주 조희성님

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구원 권에 드는 사람은 하나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에다가 너 자를 붙여가 주고 하나님이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야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되려면 제일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결코 구원과는 상관 없어요. 하나 속에 영성이 있고, 하나 속에 천당이 있고, 하나 속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인간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주체 영이 되는 순간 바로 분열의 영이 주체

영이 되니까 인간들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분열의 영인고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분열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고로 사람들이 하나 되기가 어렵죠? 인간들은 전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전부 분열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단에서는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라고 그러죠?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내가 다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

나가 되어야 하나님이 되게 되어 있는고로 먼저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온에는 생수가 강같이 흘러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하는 것은 영적인 말씀인데 생수가 연결되면 사람들이 생수가 끊어졌다가 다시 연결되면 말랐던 그 시냇물이 흘러온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이 되니까 꽃처럼 아름다운 화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랐던 시냇물들이 그 화초에 흐른다는 거예요. 화초가 바로 하나님이 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은 인간 세상이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세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는 생수가 연결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생수가 바로 어린 양의 보좌가 근원이 되어서 흐른다는 찬송가가 있죠? 그 어린양이 구세주를 말하는 거예요. 구세주의 보좌로부터 그 생수가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수가 강같이 화초와 같은 하나님 사이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 생수가 세계 만국에 다 흐르는 것입니다. 생수가 흐르는 그 세계는 바로 시온의 세계요 시온의 세계는 바로 인간들이 하나님이 된 세계인 것입니다.

만법전에 모든 인간들이 불 속에서 산다는 말을 했는데 이것은 구세주의 얼굴에서 빛이 나가는데 소멸하는 불이 아니고 생명이 피는 불인고로 그날에는 인간 속에 있는 나라의 의식의 마귀가 그 빛에 의해서 완전히 소멸되

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회복된 바로 처음 이루어진 하늘나라가 바로 시온의 나라예요. 아시겠어요?

임박한 시온의 나라

시온의 나라가 점점 임박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노릇을 해야 하나님이 되는 거지 인간 노릇을 계속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되려면 하나님 노릇을 해야 되겠죠?

인간이라는 건 시기질투, 노여움, 화도 내고, 신경질도 내고 하죠? 그러면서 음란죄도 짓고, 헬기를 부리죠? 인간의 탈을 벗으려면 이러한 인간의 속성을 다 버려야 합니다.

하늘나라가 임박했어요. 인간 세상이 곧 끝납니다. 하나님의 세상이 되어버려요. 우주가 하늘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그랬으므로 하늘나라가 이 우주에 설립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구세주가 하늘나라를 건설하러 온 거지 여기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예요. 구세주는 마귀를 전부 소멸해 버리고 하나님만 사는 세상을 만들러 온 거예요. 이 세상에 가짜 구세주가 많이 와가지고 나도 구세주요, 나도 구세주요 하고 거짓말했지만 그 거짓말이 조금만 있으면 틀음이 납니다. 그래서 십자가 단 교회들이 전부 십자가 떼어버리고 승리제단 간판을 붙이게 되어 있어요.*

2002년 2월 6일 말씀 중에서

[연재]不老不死 어떻게 가능한가

피의 순환

서양의학을 근간으로 하는 병원의 의학자들은 물리학자가 물질을 연구 하듯이 인간 육체를 '기본 구성체'와 '기본적 기능'으로 환원하여 파악하려고 노력해 왔다. 이러한 '기계론적 생명관'은 생물현상을 개체→기관→조직→세포→분자라는 기본 구성체의 기계적 도식으로 잘라 보게 되었다. 이는 하나의 생명체를 주로 물질 관론적 입장에서 대하는 원인이 되었고, 마음과 정신은 부차적으로 취급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병의 치료라는 것이 환부의 병원균만 밝히는 데 급급하게 되었고, 또 환부를 도려내는 '해부학적 수술' 내지 '약'을 투여하여 병원균만 죽이는 데 혈안이 되었다. 마치 서양의 선진화로 거창한 첨단 의료 장비만 있으면 모든 병이 다 완치되는 환상을 안고 병원으로 병원으로 몰려들게 만들었다. 그러나 현실은 과거보다 더 심각한 오만 가지 병으로 치료는 고사하고 돈과 시간과 수고로움이 다 허사여 그친다.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자연치유력(항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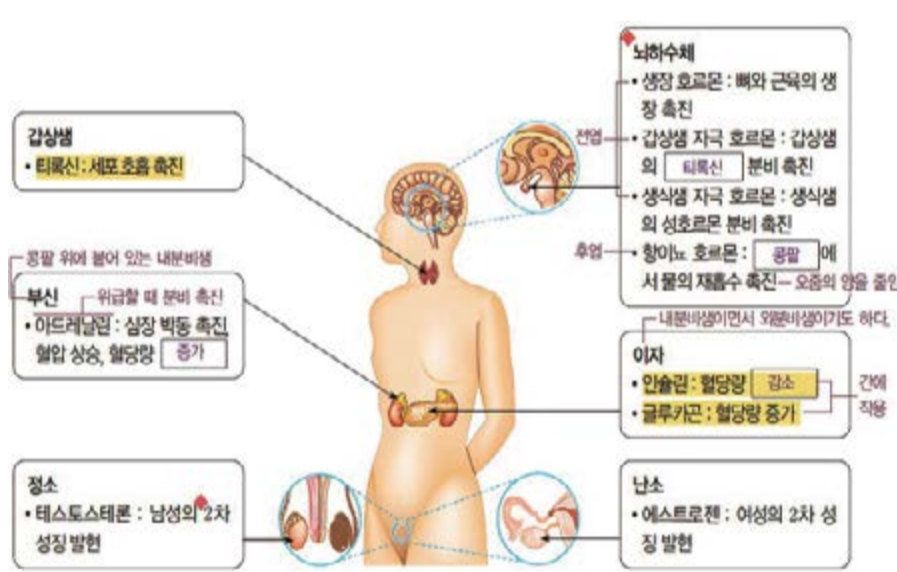
일찍이 서양 의학의 아버지로 추앙 받고 있는 히포크라테스가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자연치유력(항상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하

였다. 그러나 후대에 서양의학자들이 많은 사람을 일시에 사망케 한 전염병과 아동들의 조기 사망률이 줄어 들면서 자연치유에 대한 관심은 사라졌다. 근래에 들어, 다시 서양의학이 가장 발달한 구미(歐美)의 일부 의학자들이 병적 요인에 대응하는 기능과 기력이 약한 것이 세균과 같은 병원체가 침범하여 질병을 발생하게 하는 근본 원인이 되고, 병원체의 확인이 어려운 질환이 의외로 많음을 알게 되었다.

상식적으로 많은 질병을 발생하게 하는 바이러스는 단독으로 있을 때에는 생명활동을 하지 못한다. 다른 생명체에 침투가 되었을 때만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발달한 현대과학도 생명체 안에서 작용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억제(抑制, inhibition)하는 약제(藥劑, medicine)를 개발하였으나, 없애는 약제는 아직 개발하지 못한 상태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동안 계점이 있음을 여실히 알게 되어 일부 현대 의학자들이 대체의 방법을 찾게 되었다. 이들이 확실한 대안이라고 확신한 내용이 '자연치유의 방법'이다. 자연치유에 대해서는 의학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우리나라 대학에 자연치유 관련 학과가 설립된 사실에서도 이

질병의 근본적 치유



를 잘 알 수 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주위 환경에는 질병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병원체가 항상 존재한다. 인체가 가지고 있는 2백만 개의 탐구망마 질병을 발생시킬 수 있는 세균이 가득 차 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미생물학자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체를 구성한 세포의 수는 60조 개인데 비해 사람의 몸 안에 상주하고 있는 세균과 같은 미생물은 3천여 종으로 그 수는 무려 1백조 개라고 한다. 어떤 요인 때문에 자연치유력(항상성)이 약화되면, 대장균과 같은 유해균 1개가 24시간 내에 5조 개로 번식 배양되며 질병을 발생하게 한다고 한다.

이에서의 화학적이며 신경학적인 유대를 발견함으로써 지금 상당한 발전에 이르고 있다. 사고와 심상(心像)은 몸 전체를 통하여 뇌에서 세포로 메시지를 전달한다. 예를 들어 인체의 복잡한 메카니즘은 건강과 관련된 3가지 중요한 물질로 쉽게 설명될 수 있다.

아드레날린 호르몬과 엔돌핀 호르몬 그리고 T임파구라는 것이 바로 그것

'아드레날린 호르몬'은 사람이 흥분할 때 나오는 호르몬으로, 화를 내거나 남을 미워할 때, 적을 만났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혹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대량 분비된다.

'엔돌핀 호르몬'은 기분이 좋고 안락할 때, 마음이 가라앉고 평화로울 때, 남에게 좋은 것을 베풀거나 잘못된 것을 진심으로 반성 또는 시정했을 때도 분비돼 인체를 편안하고 소쾌하게 해준다.

그러나 이 두 물질은 사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저항력의 원천, 즉 T임파구의 강약(強弱)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T'임파구'란 혈액 속에 있는 항체(抗體)의 하나로서, 몸 안에 침투한 병원균과 맞서 싸우는 주된 역할을 한다.

만약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되면 힘이 약해지고, 엔돌핀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반대로 힘이 강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강유지의 관건은 평소 엔돌핀이 많이 분비되는 쪽으로 삶을 영위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려면 늘 온화하며 남에게 베풀면서 즐겁게 생활하는 삶, 그 자체가 나쁜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 자연치유력을 강화시켜 주는 조건이 될 것이다.

그 외 건강의 요체로서 '음식'과 '운동'을 들 수 있다. T'임파구가 싫어하는 음식은 기름기 많은 음식과 인스턴트식품이라고 한다. 기름기가 많아지면 생명이 되는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피의 순환과 기능'이 어려워지고 나빠지기 때문이다. 운동 역시 '피의 원활한 순환'과 '조직기관의 제기능'을 유지시키는 데 절대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질병의 근본적 치유법은 자연치유력을 강화시키는 것인데, 자연치유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마음과 정신을 편안하고 즐겁게 가지는 것이다. 마음과 정신을 편안하고 즐겁게 가지려면 어린 아이와 같이 마음이 해맑고 명랑해야 한다. 어린 아이처럼 신나고 재밌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자연치유력이 왕성하여 설사 상처가 나도 감기가 걸려도 금방 낫는 이치가 바로 거기에 있다 하겠다.*

김주호 기자